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본원의 경우 2008년 ‘청소년의 국가관, 안보의식함양을 위한 정책대안연구’를 수행한 이래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못했음. 따라서 10년 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통일 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본원은 10년 전인 2008년 중학생 820명, 고등학생 820명 등 총 1,640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통일시기 등을 조사하였음. 또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지도자에 대한 생각, 북한학생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하였음.

-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청소년들(41.6%)이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답했고 31.2%의 학생들은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해 약 73%의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하지만, 4명 중 1명 정도는 현 상황에 만족하거나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31.5%)이 ‘국가경쟁력강화’를 꼽았으며 청소년의 절반(50.0%)이 통일이 이뤄지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 응답하였음.

- 또한 청소년들은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같은 민족 (26.8%)을 가장 많이 답하였고 핵무기(21.5%), 사회주의국가(18.4%), 극심한 식량난(16.1%) 순이었음.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64.9%의 청소년들은 지독한 독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55.1%는 북한에 살고 있는 같은 또래들과 마음이 통하면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 청소년들은 북한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같은 또래의 북한학생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통일을 위해 특별세금을 내거나 탈북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할 때 우대해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더 표명했음(김경은, 윤노아, 2012).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심인선, 김영순, 황원판, 2013). 또한 이 조사에서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의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평소 북한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우리와 같은 한민족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높았음.
- ▶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비율은 낮았음. 가령,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8)의 조사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9.4%, 30대 11.1%, 40대 17.0%, 50대 18.9%, 60대 이상 26.0%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일부의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3.1%, 2016년 63.4%, 2017년 62.6%로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음(통일부 보도자료, 2017).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평소 통일하면 '평화/화합'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렸음.
- ▶ 올해 들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어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10년 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바뀐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 동서독의 청소년교류가 통일전후의 독일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신두철, 2014)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류를 원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서독의 경우 일찍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였고 동독청소년과의 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함(신두철, 2014).

- ▶ 본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청소년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34.5%에 불과했음(김형주, 권재기, 2014). 미국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87.8%)이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69.8%의 청소년들은 남북한청소년교류 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이 35.4%로 가장 많았고 음악, 미술 등 예술활동, 스포츠, 상호방문, 유적지 답사 순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남북청소년교류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참여할 의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함. 아울러,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고 있으며 통일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도 파악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이와 더불어 남북청소년교류 시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지도 알아볼 계획임.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시기, 통일방식, 통일을 위해 필요한 정책, 통일이 초래할 이익 등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함.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에 대한 신뢰정도, 남북청소년교류 시 참여 의향이 있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생각도 알아보고자 함.
- ▶ 본 조사의 설문문항과 관련 출처는 다음과 같음.

* 출처가 없는 문항은 연구자가 자체개발한 문항들임.

[표 1] 설문조사문항 및 출처

영역	조사문항	출처
통일의식	통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통일부(2017)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오해섭외(2008), 110쪽
	통일가능시기	오해섭외(2008), 115쪽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 (1순위, 2순위, 3순위)	한양대 평화연구소 외(2018), 81쪽
	통일을 위한 주변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도움 필요성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2018), 444쪽
	남한사회에 가져다주는 통일의 이익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2018), 437쪽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통일의 이익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2018), 438쪽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	오해섭외(2008), 108쪽
	통일교육 시 알고 싶은 내용	심인선외(2013), 31쪽

영역	조사문항	출처
북한 이미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2018), 438쪽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	오해섭외(2008), 76쪽
	북한신뢰정도	오해섭외(2008), 89쪽
	북한또래에 대한 생각	오해섭외(2008), 93쪽
	북한사람과의 관계 (이웃, 친구 등으로 지낼 수 있는지 질문)	한만길외(2003), 120쪽
	남북청소년교류 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김형주, 권재기(2014), 281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질문방식도 각각의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묻는 방식으로 바꿈.

▶ 본 조사의 연구방법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집은 층화집락표집의 방법을 통해 이뤄졌고 조사기간은 약 3주 소요되었음.

[표 2] 연구방법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중학교 1,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학년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학교방문 조사
표집방법	층화집락표집 (전국을 크게 4개 권역별로 층화한 후 총 22개의 학교를 표집함. 한 학교당 각 학년에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18년 7월 3일 - 7월 20일 (약 3주)
표집인원	총 1,392명 (중학교 852명, 고등학교 540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63\%$

▶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음. 고등학교 3학년을 조사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중학생의 비율이 61.2%로 높음.

[표 3] 응답자 구성

	사례수 (명)	전체
전체	(1,392)	100.0
성별		
남학생	(733)	52.7
여학생	(659)	47.3
학교급		
중학교	(852)	61.2
고등학교	(540)	38.8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5.5
보통	(880)	63.2

	사례수 (명)	전체
잘 사는 편	(436)	31.3
거주 지역		
대도시	(943)	67.7
중소도시	(387)	27.8
농어촌	(62)	4.5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9.1
거의 관심 없음	(418)	30.0
약간 관심 있음	(692)	49.7
매우 관심 있음	(155)	11.1

III. 조사결과

1. 통일인식

- ▶ 청소년들은 평소에 통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는 질문에 평화/화합(34.7%)을 가장 많이 대답하였고 이산가족(20.7%), 전쟁/군사(14.8%), 사회갈등/혼란(11.9%) 순이었음. 성별로 보면 여학생(26.5%)이 남학생(15.6%)보다 이산가족을 더 많이 답했고 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15.4%)이 중학생(9.6%)보다 사회갈등/혼란을 더 많이 택했음.

[표 4] 통일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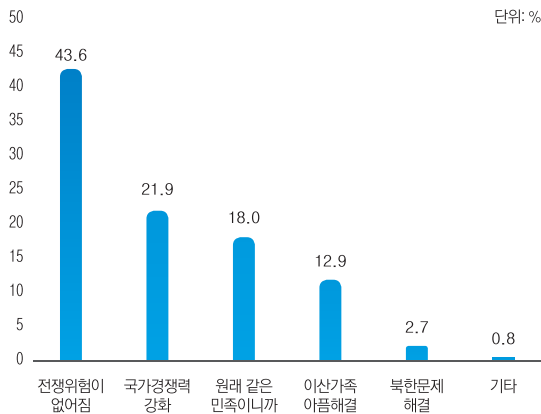
	사례수 (명)	평화/화합	이산 가족	전쟁/군사	사회갈등/ 혼란 등	국가 발전	통일 비용	기타	계
전체	(1,389)	34.7	20.7	14.8	11.9	9.5	7.3	1.1	100.0
성별									
남학생	(732)	35.4	15.6	15.7	12.0	11.9	7.8	1.6	100.0
여학생	(657)	33.9	26.5	13.9	11.7	6.8	6.7	0.5	100.0
학교급									
중학교	(851)	33.5	22.6	16.0	9.6	9.6	7.4	1.3	100.0
고등학교	(538)	36.6	17.8	13.0	15.4	9.3	7.1	0.7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30.3	22.4	19.7	9.2	9.2	7.9	1.3	100.0
보통	(878)	35.2	18.9	14.7	12.8	9.7	7.4	1.4	100.0
잘 사는 편	(435)	34.5	24.1	14.3	10.6	9.2	6.9	0.5	100.0

	사례수 (명)	평화/화합	이산 가족	전쟁/군사	사회갈등/ 혼란 등	국가 발전	통일 비용	기타	계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3.5	20.8	15.3	12.6	9.8	7.1	1.0	100.0
중소도시	(385)	36.9	20.8	12.2	10.9	10.1	7.8	1.3	100.0
농어촌	(61)	39.3	19.7	24.6	6.6	1.6	6.6	1.6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34.6	27.6	19.7	4.7	3.1	7.1	3.1	100.0
거의 관심 없음	(417)	32.9	27.1	13.9	10.8	7.4	7.7	0.2	100.0
약간 관심 있음	(691)	35.7	17.4	14.8	13.5	10.4	6.9	1.3	100.0
매우 관심 있음	(154)	35.1	13.0	13.6	13.6	16.2	7.8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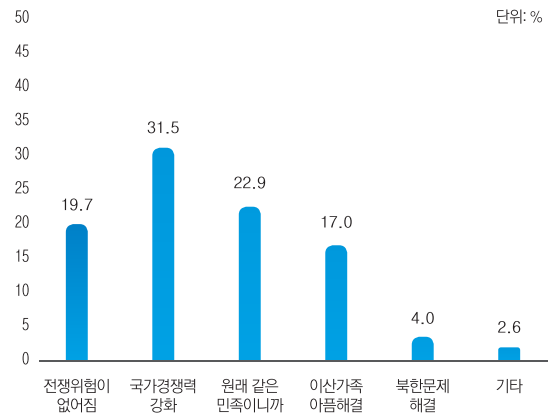
- ▶ 청소년들은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쟁위험해소(43.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국가경쟁력 강화(21.9%)가 그 뒤를 이었고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18.0%), 이산가족아픔해결(12.9%) 순이었음. 흥미롭게도 정치적 관심이 매우 많은 청소년의 경우 국가경쟁력강화(35.1%)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오해섭외(2008)의 조사결과와는 상이함. 2008년도 조사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가 31.5%로 가장 높았고,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22.9%, 전쟁위험 없어짐 19.7%, 이산가족아픔해결 17.0%, 북한문제해결 4.0%, 기타 2.6%를 차지한 바 있음.

[표 5]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사례수 (명)	전쟁위험이 없어짐	국가경쟁력 강화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아픔 해결	북한문제 해결	기타	계
전체	(1,391)	43.6	21.9	18.0	12.9	2.7	0.8	100.0
성별								
남학생	(732)	45.5	23.6	17.3	9.3	3.3	1.0	100.0
여학생	(659)	41.6	19.9	18.8	17.0	2.1	0.6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4.0	19.1	17.8	15.1	3.2	0.7	100.0
고등학교	(539)	43.0	26.2	18.4	9.5	2.0	0.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2.1	26.3	17.1	7.9	6.6	0.0	100.0
보통	(879)	44.3	22.0	17.5	13.1	2.3	0.9	100.0
잘 사는 편	(436)	42.7	20.9	19.3	13.5	3.0	0.7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3.7	20.6	18.3	13.8	2.8	0.8	100.0
중소도시	(386)	44.6	23.6	16.8	11.4	2.8	0.8	100.0
농어촌	(62)	37.1	30.6	21.0	9.7	1.6	0.0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8.0	15.0	14.2	15.7	4.7	2.4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8.6	16.3	18.4	13.4	2.2	1.2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43.2	23.6	17.6	12.9	2.6	0.1	100.0
매우 관심 있음	(154)	28.6	35.1	22.1	9.7	3.2	1.3	100.0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 2018년 조사>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 2008년 조사>

- ▶ 청소년들은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년 이내(27.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이어서 10년 이상이 24.9%, 5년 이내 16.8%, 불가능 17.8%, 3년 이내 14.2%를 차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오해섭외(2008)의 조사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2008년도 조사에서는 10년 이상이 50.0%로 가장 많았고 3년 이내는 5.1%에 불과하였음.

[표 6] 통일시기

	사례수 (명)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	계
전체	(1,392)	14.2	16.8	27.2	24.9	16.8	100.0
성별							
남학생	(733)	15.1	15.4	24.7	26.1	18.7	100.0
여학생	(659)	13.2	18.4	30.0	23.7	14.7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16.2	17.5	26.6	25.5	14.2	100.0
고등학교	(540)	11.1	15.7	28.1	24.1	20.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3.2	14.5	30.3	18.4	23.7	100.0
보통	(880)	13.1	16.0	26.6	26.5	17.8	100.0
잘 사는 편	(436)	16.7	18.8	28.0	22.9	13.5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13.6	17.6	27.1	24.5	17.2	100.0
중소도시	(387)	16.0	16.3	27.9	23.3	16.5	100.0
농어촌	(62)	12.9	8.1	24.2	41.9	12.9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7.3	15.0	18.1	26.0	23.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5.1	15.8	27.0	23.9	18.2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12.7	18.4	29.5	25.1	14.3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16.1	14.2	25.2	25.8	18.7	100.0

- ▶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통일방식으로는 남한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방식(48.4%)이 가장 많았고 연방제통일방식도 3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정치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연방제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또한 연방제통일선호는 남학생(31.4%)보다 여학생(40.8%)에게서 보다 높게 드러났음.

[표 7] 선호하는 통일방식

	사례수 (명)	남한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방식	북한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방식	각 체제를 상호 혹은 서로 인정하는 방식의 연방제 통일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392)	48.4	0.5	35.8	15.2	100.0
성별						
남학생	(733)	53.6	0.8	31.4	14.2	100.0
여학생	(659)	42.6	0.2	40.8	16.4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4.5	0.4	36.5	18.7	100.0
고등학교	(540)	54.6	0.7	34.8	9.8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50.0	0.0	28.9	21.1	100.0
보통	(880)	48.6	0.5	36.0	14.9	100.0
잘 사는 편	(436)	47.7	0.7	36.7	14.9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8.0	0.4	36.8	14.7	100.0
중소도시	(387)	48.3	0.3	35.7	15.8	100.0
농어촌	(62)	54.8	3.2	22.6	19.4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0.9	0.0	26.8	32.3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3.3	1.0	31.1	24.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51.4	0.3	39.6	8.7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54.8	0.6	39.4	5.2	100.0

- ▶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남북한 평화적 국가관계확립(36.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개선(19.8%), 남한주민들의 통일인식개선(14.9%), 남북한 정치경제적 교류확대(7.1%)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남북한 민간교류확대(5.0%), 남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개선(4.3%)은 5% 이하에 머물렀음.

[표 8]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1순위응답)

	사례수 (명)	남북한 평화적 국가관계 확립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개선	남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개선	남북한 정치 경제적 교류 확대	중국, 미국 등의 국제적 합의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개선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남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개선	계
전체	(1,392)	36.4	19.8	14.9	7.1	6.3	6.2	5.0	4.3	100.0
성별										
남학생	(733)	31.1	21.8	16.0	8.3	5.9	5.2	5.7	6.0	100.0
여학생	(659)	42.3	17.5	13.7	5.8	6.8	7.3	4.2	2.4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37.7	18.7	15.5	5.9	6.8	7.2	4.3	4.0	100.0
고등학교	(540)	34.4	21.5	13.9	9.1	5.6	4.6	6.1	4.8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7.4	13.2	14.5	9.2	9.2	2.6	2.6	1.3	100.0
보통	(880)	35.6	20.3	15.2	6.6	5.8	6.4	4.9	5.2	100.0
잘 사는 편	(436)	36.2	19.7	14.2	7.8	6.9	6.4	5.7	3.0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6.4	20.6	14.7	7.3	6.0	5.8	5.0	4.1	100.0
중소도시	(387)	37.0	17.6	15.2	7.0	6.5	6.7	5.4	4.7	100.0
농어촌	(62)	33.9	21.0	14.5	4.8	9.7	8.1	3.2	4.8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33.9	22.0	15.7	6.3	6.3	4.7	6.3	4.7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37.1	20.3	15.3	6.7	4.5	6.7	5.7	3.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36.3	18.6	15.2	7.9	7.2	6.1	4.3	4.3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7.4	21.3	11.6	5.2	7.1	6.5	5.2	5.8	100.0

- ▶ 청소년들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도움(3.9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도움은 2.5점으로 평균(3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3.3점, 러시아는 3.1점이었음. 즉 많은 청소년들이 일본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음.
- ▶ 전체응답자 중 82.8%의 청소년들은 통일이 남한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10명 중 3명(29.4%)은 통일이 남한사회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음. 특히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② 이익이 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④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③+④ 이익이 됨	계
전체	(1,392)	4.5	12.6	17.2	53.4	29.4	82.8	100.0
성별								
남학생	(733)	5.2	11.9	17.1	48.7	34.2	82.9	100.0
여학생	(659)	3.8	13.5	17.3	58.7	24.0	82.7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2	13.3	17.5	51.9	30.6	82.5	100.0
고등학교	(540)	5.0	11.7	16.7	55.9	27.4	83.3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7.9	17.1	25.0	46.1	28.9	75.0	100.0
보통	(880)	4.5	12.5	17.0	54.8	28.2	83.0	100.0
잘 사는 편	(436)	3.9	12.2	16.1	52.1	31.9	83.9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4.2	12.4	16.6	51.6	31.7	83.4	100.0
중소도시	(387)	4.4	13.2	17.6	56.8	25.6	82.4	100.0
농어촌	(62)	9.7	12.9	22.6	59.7	17.7	77.4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5.5	18.9	24.4	55.1	20.5	75.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6.2	14.1	20.3	55.0	24.6	79.7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2.7	11.8	14.6	55.2	30.2	85.4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7.1	7.1	14.2	40.0	45.8	85.8	100.0

- ▶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크게 높지는 않았음. 즉 40% 가량의 청소년들이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음. 정치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통일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관찰됐음.

[표 10]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도

	사례수 (명)	①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② 이익이 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④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③+④ 이익이 됨	계
전체	(1,392)	9.7	29.2	38.9	47.6	13.6	61.1	100.0
성별								
남학생	(733)	10.1	26.5	36.6	45.4	18.0	63.4	100.0
여학생	(659)	9.3	32.2	41.4	49.9	8.6	58.6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8.9	27.7	36.6	48.9	14.4	63.4	100.0
고등학교	(540)	10.9	31.5	42.4	45.4	12.2	57.6	100.0

	사례수 (명)	①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② 이익이 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④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③+④ 이익이 됨	계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1.8	34.2	46.1	47.4	6.6	53.9	100.0
보통	(880)	9.4	29.9	39.3	47.3	13.4	60.7	100.0
잘 사는 편	(436)	9.9	26.8	36.7	48.2	15.1	63.3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9.8	27.6	37.3	47.8	14.8	62.7	100.0
중소도시	(387)	8.5	33.3	41.9	47.0	11.1	58.1	100.0
농어촌	(62)	16.1	27.4	43.5	46.8	9.7	56.5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21.3	33.1	54.3	33.1	12.6	45.7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8.6	34.9	43.5	47.1	9.3	56.5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7.9	26.4	34.4	52.2	13.4	65.6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11.0	22.6	33.5	40.0	26.5	66.5	100.0

- ▶ 절반가량의 청소년들(50.4%)이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19.8%의 응답자들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음.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대답은 11.9%, 나와 상관없다는 응답은 17.9%로 조사됐음. 하지만,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경우 37.4%의 응답자들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음. 이러한 결과는 오해섭외(2008)의 조사와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당시 41.6%의 청소년들이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이어 반드시 해야 한다(31.2%), 지금 이대로가 좋다(16.3%), 나와 상관없다(9.2%) 순이었음.

[표 11]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

	사례수 (명)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계
전체	(1,392)	19.8	50.4	17.9	11.9	100.0
성별						
남학생	(733)	23.5	48.3	17.9	10.4	100.0
여학생	(659)	15.8	52.8	17.9	13.5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22.1	50.1	16.2	11.6	100.0
고등학교	(540)	16.3	50.9	20.6	12.2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5.8	56.6	13.2	14.5	100.0
보통	(880)	19.1	49.9	19.1	11.9	100.0
잘 사는 편	(436)	22.0	50.5	16.3	11.2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21.6	48.5	18.2	11.7	100.0
중소도시	(387)	16.3	55.8	16.8	11.1	100.0
농어촌	(62)	14.5	46.8	19.4	19.4	100.0

	사례수 (명)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계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0.2	47.2	29.9	12.6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2.9	53.3	19.9	13.9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21.8	51.3	15.8	11.1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7.4	41.3	12.3	9.0	100.0

- ▶ 청소년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 미래(39.2%)를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했음. 이어 북한의 실상(23.9%), 남북한사회 비교(14.1%) 순이었음.

[표 12] 통일교육 내용

	사례수 (명)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 미래	북한의 실상	남북한 사회 비교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정부의 대북 정책	기타	계
전체	(1,379)	39.2	23.9	14.1	13.1	9.1	0.5	100.0
성별								
남학생	(723)	37.8	21.9	14.5	14.5	10.5	0.8	100.0
여학생	(656)	40.7	26.2	13.7	11.6	7.6	0.2	100.0
학교급								
중학교	(845)	38.9	23.9	16.7	10.7	9.2	0.6	100.0
고등학교	(534)	39.5	24.0	10.1	17.0	9.0	0.4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0.8	18.4	17.1	13.2	10.5	0.0	100.0
보통	(870)	38.9	24.4	13.6	13.4	9.2	0.6	100.0
잘 사는 편	(433)	39.5	24.0	14.8	12.5	8.8	0.5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35)	39.1	23.0	14.2	13.3	9.6	0.7	100.0
중소도시	(383)	39.7	26.6	12.0	13.3	8.4	0.0	100.0
농어촌	(61)	36.1	21.3	26.2	9.8	6.6	0.0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2)	28.7	44.3	13.9	9.0	3.3	0.8	100.0
거의 관심 없음	(415)	42.2	25.5	14.7	8.7	8.0	1.0	100.0
약간 관심 있음	(688)	40.0	21.5	15.1	13.5	9.7	0.1	100.0
매우 관심 있음	(154)	35.7	14.3	8.4	26.6	14.3	0.6	100.0

2. 북한에 대한 이미지

- ▶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57.3%)은 북한을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10.6%)이라든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10.8%)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낮았음.

[표 13] 북한에 대한 인식

	사례수 (명)	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지원대상이다	② 우리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③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④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계
전체	(1,392)	16.6	57.3	9.5	10.6	10.8	100.0
성별							
남학생	(733)	16.0	54.6	9.8	13.9	10.6	100.0
여학생	(659)	17.3	60.2	9.1	7.0	10.9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16.9	56.0	12.0	10.4	10.7	100.0
고등학교	(540)	16.1	59.3	5.6	10.9	10.9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23.7	42.1	2.6	15.8	17.1	100.0
보통	(880)	16.1	56.6	10.7	10.8	11.1	100.0
잘 사는 편	(436)	16.3	61.2	8.3	9.4	8.9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16.4	58.0	8.3	10.6	10.8	100.0
중소도시	(387)	16.3	58.4	10.3	9.3	10.9	100.0
농어촌	(62)	21.0	38.7	22.6	19.4	9.7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22.8	43.3	9.4	8.7	20.5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8.7	54.1	13.9	11.0	9.3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14.2	61.1	8.7	11.8	8.5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16.8	60.0	1.3	5.8	16.8	100.0

- ▶ 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35.6%)는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핵무기를 꼽았고 독재정권이 22.1%로 그 뒤를 이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음.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 2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반면,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은 17.0%에 불과했음. 오해섭외(2008)의 조사에서는 같은 민족이 26.8%로 가장 높았고 핵무기(21.5%), 사회주의국가(18.4%), 극심한 식량난(16.1%), 독재정권(15.5%) 순으로 나타났음.

[표 14]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사례수 (명)	핵무기	독재정권	같은 민족	사회주의 국가	극심한 식량난	기타	계
전체	(1,392)	35.6	22.1	17.0	11.8	9.6	4.0	100.0
성별								
남학생	(733)	36.4	21.4	17.6	10.1	9.0	5.5	100.0
여학생	(659)	34.7	22.8	16.2	13.7	10.3	2.3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40.3	18.0	18.8	9.9	8.6	4.6	100.0
고등학교	(540)	28.3	28.5	14.1	14.8	11.3	3.0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43.4	21.1	14.5	5.3	9.2	6.6	100.0
보통	(880)	35.3	22.4	16.7	10.5	10.3	4.8	100.0
잘 사는 편	(436)	34.9	21.6	17.9	15.6	8.3	1.8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35.1	23.0	16.2	12.2	9.4	4.0	100.0
중소도시	(387)	34.9	20.9	18.6	10.9	10.9	3.9	100.0
농어촌	(62)	48.4	14.5	17.7	11.3	4.8	3.2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8.8	12.6	10.2	11.0	11.0	6.3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40.4	18.4	15.8	11.5	10.8	3.1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33.4	24.6	16.8	11.7	9.7	3.9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21.9	28.4	26.5	13.5	5.2	4.5	100.0

- ▶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40.2%)가 북한을 어느 정도 믿는다고 응답했음. 하지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음.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응답도 29.2%에 달했음. 이러한 결과는 오해설외(2008)의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당시 조사결과 어느 정도 믿는다가 41.9%, 믿을 수 없다 30.6%,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18.7%,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7.7%였음.

[표 15] 북한에 대한 신뢰정도

	사례수 (명)	믿을 수 없다	어느 정도 믿는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계
전체	(1,392)	29.2	40.2	25.1	5.5	100.0
성별						
남학생	(733)	29.2	39.8	23.1	7.9	100.0
여학생	(659)	29.3	40.5	27.3	2.9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27.5	41.3	25.0	6.2	100.0
고등학교	(540)	32.0	38.3	25.2	4.4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34.2	39.5	23.7	2.6	100.0
보통	(880)	29.7	39.1	26.0	5.2	100.0
잘 사는 편	(436)	27.5	42.4	23.4	6.7	100.0

	사례수 (명)	믿을 수 없다	어느 정도 믿는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계
거주 지역						
대도시	(943)	29.7	38.9	25.3	6.0	100.0
중소도시	(387)	27.9	42.9	25.1	4.1	100.0
농어촌	(62)	30.6	41.9	21.0	6.5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48.0	26.0	18.1	7.9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29.7	43.3	24.4	2.6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24.7	42.5	27.6	5.2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32.9	32.9	21.3	12.9	100.0

- ▶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61.5%)는 마음이 통하면 북한 또래와 친구로 지내겠다고 답했음. 반면, 어울리기 힘들다는 15.9%, 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4.4%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오해섭외(2008)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는 어울리기 힘들다가 23.3%, 같이 놀고 싶지 않다가 1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16] 북한또래에 대한 생각

	사례수 (명)	적극 도우면서 친하게 지내겠다	마음이 통하면 친구로 지낸다	어울리기 힘들다	같이 놀고 싶지 않다	계
전체	(1,392)	18.2	61.5	15.9	4.4	100.0
성별						
남학생	(733)	17.6	60.7	16.5	5.2	100.0
여학생	(659)	18.8	62.4	15.3	3.5	100.0
학교급						
중학교	(852)	19.6	57.9	17.3	5.3	100.0
고등학교	(540)	15.9	67.2	13.9	3.0	100.0
가정 형편						
가난한 편	(76)	11.8	59.2	19.7	9.2	100.0
보통	(880)	16.8	63.6	15.7	3.9	100.0
잘 사는 편	(436)	22.0	57.6	15.8	4.6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943)	19.3	58.9	17.3	4.6	100.0
중소도시	(387)	16.0	67.2	12.9	3.9	100.0
농어촌	(62)	14.5	66.1	14.5	4.8	100.0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127)	11.0	51.2	26.8	11.0	100.0
거의 관심 없음	(418)	13.4	64.1	18.2	4.3	100.0
약간 관심 있음	(692)	19.9	63.7	13.3	3.0	100.0
매우 관심 있음	(155)	29.0	52.9	12.9	5.2	100.0

- ▶ 청소년들은 북한사람과 친구로 사귀거나 직장동료로 같이 일할 수 있으며 이웃에 함께 살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통일비용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거나 통일로 인한 실업발생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음.

[표 17] 북한사람과의 관계

	북한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북한사람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북한사람과 직장동료로 일할 수 있다	북한사람과 이웃에 함께 살 수 있다	통일비용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통일로 인한 실업발생으로 내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감수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다	북한사람과 기회가 닿으면 동업할 수 있다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전체	3.1	3.9	3.9	3.9	2.7	2.5	2.9	3.4
성별								
남학생	3.3	3.9	3.9	3.9	2.7	2.6	3.0	3.5
여학생	2.9	4.0	4.0	4.0	2.7	2.4	2.8	3.3
학교급								
중학교	3.1	3.9	4.0	3.9	2.8	2.6	3.0	3.4
고등학교	3.1	4.0	3.9	3.9	2.6	2.4	2.8	3.3
가정 형편								
가난한 편	3.2	3.8	3.9	3.8	2.4	2.2	2.8	3.2
보통	3.1	3.9	3.9	3.9	2.7	2.5	2.9	3.4
잘 사는 편	3.0	4.0	4.0	4.0	2.8	2.6	2.9	3.4
거주 지역								
대도시	3.1	4.0	4.0	4.0	2.8	2.5	2.9	3.4
중소도시	3.0	3.9	3.9	3.9	2.6	2.5	2.9	3.3
농어촌	3.0	3.6	3.6	3.7	2.7	2.5	2.8	3.2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2.6	3.5	3.5	3.5	2.4	2.3	2.5	2.9
거의 관심 없음	3.0	3.8	3.8	3.8	2.7	2.5	2.9	3.3
약간 관심 있음	3.2	4.1	4.1	4.1	2.7	2.5	3.0	3.5
매우 관심 있음	3.2	4.2	4.2	4.1	2.9	2.6	3.1	3.7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 ▶ 청소년들은 남북교류 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음. 이 중에서도 특히 관광, 수학여행, 야영활동, 컴퓨터게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했음. 반면, 음악활동이나 미술활동 등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비교적 낮았음. 컴퓨터게임은 남학생들의 참여욕구가 강했고 음악이나 미술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여학생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났음.

[표 18] 남북청소년교류 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1

	수학여행		관광		음악활동		미술활동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전체	21.4	78.6	18.6	81.4	40.1	59.9	39.7	60.3
성별								
남학생	22.3	77.7	20.5	79.5	47.5	52.5	49.2	50.8
여학생	20.4	79.6	16.6	83.4	31.9	68.1	29.0	71.0

	수학여행		관광		음악활동		미술활동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학교급								
중학교	19.2	80.8	18.1	81.9	37.7	62.3	35.9	64.1
고등학교	24.9	75.1	19.5	80.5	43.9	56.1	45.6	54.4
가정 형편								
가난한 편	26.7	73.3	29.3	70.7	46.1	53.9	40.8	59.2
보통	22.6	77.4	19.0	81.0	40.7	59.3	40.1	59.9
잘 사는 편	17.9	82.1	16.1	83.9	37.8	62.2	38.5	61.5
거주 지역								
대도시	22.1	77.9	18.6	81.4	41.1	58.9	40.7	59.3
중소도시	20.6	79.4	19.2	80.8	37.7	62.3	38.0	62.0
농어촌	16.1	83.9	16.1	83.9	38.7	61.3	33.9	66.1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42.1	57.9	35.4	64.6	57.5	42.5	51.2	48.8
거의 관심 없음	22.5	77.5	21.3	78.7	42.8	57.2	40.7	59.3
약간 관심 있음	16.5	83.5	13.7	86.3	36.4	63.6	37.6	62.4
매우 관심 있음	23.2	76.8	19.4	80.6	34.8	65.2	36.8	63.2

[표 19] 남북청소년교류 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2

	스포츠활동		유적지답사		야영활동		전통문화체험		컴퓨터게임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의향 있음
전체	27.9	72.1	30.5	69.5	24.1	75.9	31.3	68.7	26.3	73.7
성별										
남학생	27.6	72.4	31.2	68.8	24.2	75.8	36.7	63.3	21.4	78.6
여학생	28.3	71.7	29.7	70.3	23.9	76.1	25.4	74.6	31.9	68.1
학교급										
중학교	25.5	74.5	31.0	69.0	23.3	76.7	28.9	71.1	22.8	77.2
고등학교	31.7	68.3	29.7	70.3	25.3	74.7	35.1	64.9	31.9	68.1
가정 형편										
가난한 편	35.5	64.5	46.7	53.3	34.7	65.3	52.0	48.0	30.7	69.3
보통	28.8	71.2	30.2	69.8	24.7	75.3	31.3	68.7	28.1	71.9
잘 사는 편	24.8	75.2	28.3	71.7	20.9	79.1	27.8	72.2	22.1	77.9
거주 지역										
대도시	27.9	72.1	31.3	68.7	24.7	75.3	31.7	68.3	27.3	72.7
중소도시	28.2	71.8	30.1	69.9	22.3	77.7	31.7	68.3	24.6	75.4
농어촌	25.8	74.2	21.0	79.0	25.8	74.2	22.6	77.4	22.6	77.4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40.9	59.1	59.1	40.9	44.4	55.6	59.5	40.5	33.1	66.9
거의 관심 없음	25.4	74.6	35.6	64.4	26.9	73.1	34.7	65.3	26.9	73.1
약간 관심 있음	27.1	72.9	24.5	75.5	18.8	81.2	25.4	74.6	24.2	75.8
매우 관심 있음	27.7	72.3	20.0	80.0	23.2	76.8	25.8	74.2	29.0	71.0

주.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 없음'으로, '참여하고 싶다'와 '매우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 있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 청소년의 70% 가량이 통일을 희망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이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1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수치는 두 배 가량 늘었음.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비교적 낮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임.
- ▶ 더구나 청소년들은 통일이 국가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비율은 비교적 낮았음.
- ▶ 특히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 국가미래에 대해 언급하였음.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응답은 2위를 차지하였음.
- ▶ 흥미롭게도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됐음.
-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음.
- ▶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핵무기나 독재정권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될 정도로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청소년이나 북한주민과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음. 특히 남북청소년교류 시 관광이나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음. 즉 청소년들은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주민이나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통일의 필요성 및 효과, 이익에 대한 교육 강화

-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을 떠나, 통일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가령,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고구려나 고려의 옛 유적지를 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임.

▶ 북한의 실상 교육 강화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청소년의 이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정치교육 및 정치에 대한 관심 강화

- 비록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경우 통일의 당위성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판문점견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분단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함.

▶ 평화통일교육 강화

- 청소년들은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쟁위험해소를 꼽았고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남북한 평화적 국가관계확립을 선택하였음. 따라서,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평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남북청소년간의 교류 활성화

-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보였음. 또한 관광이나 수학여행, 야영,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음. 따라서, 남북 수학여행, 남북청소년 축구대회 등 스포츠 대회를 통한 교류, 남북 청소년이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남북예술교류등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남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온라인게임대회를 개최하여 남북청소년들이 함께 기량을 기르면서 남북 간의 활발한 IT 교류를 장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독일의 경우 이러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은 통일 이전 가장 교류가 활성화 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음(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8). 따라서, 청소년 분야에서 이러한 문화예술교류가 활성화 돼야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남북청소년교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교류의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어 북한의 청소년단체와 접촉하여 상호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교류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청소년 학술행사 활성화

- 남북한 간 정치적, 문화적 이질감이 큰 만큼 상호 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 개최 등 청소년참여 학술대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잼버리대회 공동 참가

- 2023년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북한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경은, 윤노아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1), 123-140.
- 김형주, 권재기 (2014). **남북한 청소년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 14-R06.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36. <http://tongil.snu.ac.kr/> (2018년 4월 25일 인출)
- 신두철 (2014).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제도화와 정치기화구조. **유럽연구**, 32권 4호, 27-53.
- 심인선, 김영순, 황원판 (2013). 경남의 청소년 통일·안보의식 실태와 과제. **정책포커스**, 1-49. 경남발전연구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8). **남북한 청소년교류발전방안**.
- 오해선, 김형주, 김남정 (2008). **청소년의 국가관, 안보의식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통일부 보도자료 (2017. 12. 29). **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필요** - 2017년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인식 다소 낮아져-. 통일부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에서 2018년 6월 12일 인출.
- 한만길, 길은배, 강영혜, 김학성, 오해선, 최영표 (2003).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 한양대 평화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2018). **환대의 마음: 공생과 통합의 문화정치학적 탐색**. 한양대평화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계공동학술회의자료집.